

제리걸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부 최우수 김미진

나의 작음도 귀하다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아주 깊은 새벽부터 두어 번 깬다. 어떤 순간에는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한다. 마치 잠을 자고 있는 내가 죄스럽기라도 하듯이. 내 알람은 소리가 아주 작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첩하게 깰 수 있고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다. 알람 소리를 듣자마자 새벽녘 출근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머리에 꼽아본다. 내 판에 가벼운 일들뿐이라면 십 분 더 눈을 붙이는 호사를 누리기도 한다. 그리고 나서는 뭔가 일을 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집안의 작고 작은 일들을 해나간다. 그래도 그 시간에 나를 위한 보상하나쯤은 있어야지 싶어 이어폰을 끼고 애정하는 <별거벗은 세계사>를 듣는다. 세계 제 1차 대전, 홀로코스트, 태평양 전쟁, 페르시아 전쟁 별별 세계사 이야기 속에서 손과 발은 바쁘게 움직인다. 식기세척기가 ‘주인님, 저 일 다 하고 잤어요.’ 앵탈이라도 부리듯 빼꼼이 입을 벌리고 있으면 착착 정리도 하고, 뺏뺏하게 넣어놓은 빨래도 탈탈 털어본다. 과일과 채소를 씻어내고 식구들 마실 과채 쥬스도 준비한다. 아이들 취향과 오늘 하루 일과, 날씨를 떠올리며 오늘의 의상도 꺼내둔다. 역시 몸을 움직이는 일은 고되도 머리는 가볍다. 새벽은 온통 가족을 위한 나의 단순 노동으로 채워진다. 나의 빠릿함이 잠에서 깬 가족들에게 안락한 하루 시작을 선물한다고 생각한다.

내 아이를 내 학급 아이처럼, 내 학급 아이를 내 아이처럼

내 아이와 좋은 하루를 보내자고 인사하고 헤어지기가 무섭게 내 학급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 2008년 처음 교단에 섰을 때부터 나는 등곳길 아이들의 에너지를 보면서 어느 직장에서 이렇게 밝고 맑고 힘찬 에너지로 아침을 맞이하랴 싶어서 감사하다. 교실에서 그 에너지에 무너질 때가 한 두 번은 아니지만... 현관에서 한 발씩 실내화로 갈아 신으면 좋았을 것을 양말채로 바닥을 딛고 서서 여유롭게 실내화를 꺼내는 아이의 다려진 셔츠를 보면서 ‘너희 어머니도 새벽을 나처럼 채우셨구나.’ 싶다. 나를 만나본 적도 없던 아이들의 귀한 인사까지 받고 교실로 향하면 진짜 내 아이들이 있다. 어제 국어시간이 다정함을 녹여 인사해 보자는 말을 기억하고 대뜸 “선생님, 힘내세요!” 로 인사를 건네는 아이를 보면서 웃음이 절로 난다. 알림장을 두고 왔다면 울상인 아이를 보며 선생님도 솔하게 그런 실수는 한다고 다른 공책에 쓰면 된다고 전한다. 교단에 처음 섰을 때, 참 옛되고 옛되던 그 때는 아이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했던 것 같다. 아이들과 만나보니 아이들은 완벽할 필요가 없었고, 완벽함 속에서 배움을 얻는 것 같지 않았다. 다만 모든 일에 내가 책임 질 수 있으면 그뿐이라고 과육은 말랑하지만 그 안의 씨앗은 단단한 지혜를 전하고 싶다. 교실은 참 특이한 곳이다. 연못처럼 정체되어 있고자 마음먹으면 정체되어 있어

도 아이들 특유의 기운 때문인지 썩지 않는다. 그런데 세상의 급변하는 속도를 따라가고자 마음먹는다면 늘 휘몰아치는 곳이 교실이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교사 토론행연구회에서 배운 토론 기법을 활용해서 1학년 꼬꼬마들과 토론을 해본다. 개념 수업 전략을 짜보고 적용하고, 쓰디쓴 실패를 맛보기도 예상치 못한 성공적인 수업에 짜릿함을 맛보기도 한다. 탐구수업 협의를 위해 오늘 수업의 발문을 미리 적고 아이들과 주고받으며 아이들의 반응을 필사한다. 사이사이 우거지 죽상을 하고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선생님을 찾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자니 기가 죽죽 빨린다. 그래도 1학년 담임 4년째 하다 보니 첫해에는 빨린 기 때문에 손가락 들 힘이 없어서 점심도 먹는 등 마는 등 했는데 지금은 “선생님 더 주세요!” 소리에 잠깐만 하고 맛을 음미하고 있는 나를 보면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 맞긴 맞다싶다. 2023년 스승의 날 아이에게 검은 리본을 선물 받았다. 교사들의 가슴에 울분하나 없는 이가 없기에 다 같이 아파했던 한해를 보내고 나니 그래서 인지 하고 후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줄었다. 하교 후 A학부모와 통화하고 B학부모와 통화해서 중재하던 일이 눈에 띄게 줄었고, ‘아이가 숙제를 놓고 왔어요’ 라고 쓰고 ‘숙제 안해도 우리 아이 혼내지 마세요’ 로 들리는 사소한 연락도 많이 줄었다.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팩트 전달의 탈을 쓰고 있던 협박도 줄었다. 감정쓰레기통으로 얼룩졌던 오후 시간은 연구하고 동료들과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건강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난 빈 교실에서 믹스커피 두 봉을 마시며 두 눈을 감으면 아침 등굣길에서 느꼈던 만큼 평화와 감사 속에 이 길을 선택한 나를 칭찬한다. 물론 업무와 민원, 각종 연수, 회의, 출장에서 해방된 특별한 날에만 누릴 수 있는 사치다.

나를 위한 욕심은 이렇게 부린다.

우리 학교 중간 놀이터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이곳은 유럽이다. 신하교회 옆에 든든하게 버티고 서있는 효양도서관이 한 앵글에 들어오면 퇴근길에 꼭 찍고 가리라 설레는 약속을 혼자 해본다. 퇴근 후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제2의 직장으로서의 출근이지만 왼쪽으로 꺾으면 나의 소소한 일탈이 시작 된다. 북카페에 앉아 욕심부리지 말고 그 만큼만 읽고 가자고 마음먹고 앉아서 책을 본다. 어떤 날은 고단함에 잠을 쏟아질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려서 “엄마 대체 언제 와!” 하는 전화를 받고서야 서둘러 나서기도 한다. 그 작은 일탈은 내가 속해있는 달과 육펜스, 못먹어도고전 2개의 책모임에서 시작한다. 또 큰 아이와 작은 아이 각각의 독서모임을 이끌자니 4개의 책모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엄마의 자리가 익숙해질수록 나를 위한 소비가 어색해 진다. 하지만 나의 소중한 책모임에 쏟는 시간은 쓸수록 내가 채워짐을 받고 그 에너지가 넘쳐서 나의 또 나의 학급 아이들에게 전이되기에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네.” 씻고 나온 남편이 한마디 건넨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침대에 걸터 앉으면 몸이 샴베트처럼 녹아내리지만 30분 짬내서 세계사 공부를 한다. 공부랄 것도 없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며 이야기 듣는 정도지만 같은 주제를 몇 번이고 돌려 듣고 관련 책을 찾아 궁금한 점을 찾아보고, 지도 속에서 찾아볼 때 심장이 두근댄다. 나는 이렇게 나를 위해 시간을 내며 욕심을 부려가며 나를 채우고 있다.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그래도 넌데, 미안해.

내 삶에서 자꾸만 입지가 좁아지는 사람이 한 명 있다. 한때는 나의 우주였고, 내 일상이 온통 그 사람으로 물들었을 때도 있었는데 아이가 하나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기르면서... 또 나의 자아도 자라면서... 남편으로 차 있던 그 공간을 자꾸만 다른 것들에게 내어 주고 있다. 나의 하루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잘 알아줄 당신이기에 그래도 이해해 줄 바다 같은 사람이기에 자꾸 내 마음에서 그의 방을 줄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꿈은 오로지 당신과 오늘은 머 먹을까 오늘은 어디 갈까 같은 한가한 고민으로 채워갈 너와 나의 노후이라는 것을 내 담은 항상 같은 소중한 내 남편에게 전해야겠다.

아침에는 하루를 준비하고 저녁이 되면 그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허무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부득부득 꺼내어 쓰고, 준비해 먹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 자리를 찾아 주고, 깨끗하게 씻어 언제 식사를 했었던 거냐는 듯이 정리를 한다. 빠지는 것 없이 출근 가방, 아이들 학교 가방이 채워지고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는다. 매일이 같다. 하지만 제자리걸음은 아니다. 긴 항로에서 나는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시선이 향하는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많은 보물을 얻는다. 내가 향하는 곳이 아직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딘가 일지도 모르지만 그 곳에 있는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임에 틀림없다.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나의 바쁜 일상은 그래서 제자리걸음은 아닌 것이다.

마지막 임무

일반부 우수 전해숙

‘쏟살같은’이란 말로는 부족하다. ‘빛의 속도로 스치는’이라면 모를까. 어제 일 같은데 그새 첫 기일이라니. 작년 7월 28일. 시아버님 시숙에 이어 심뇌혈관 질환이라는 가족력 앞에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말았다. 백세시대라는데 칠십년도 못 채운, 겨우 예순아홉 나이였다. 사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십 일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것은 꿈이지 현실일 수 없었다. 퇴근 시간이면 현관문으로 들어올 것만 같고 옷장 문을 열면 남편이 거기 있었다. 식탁 맞은편에도 소파에서도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아침에 눈을 뜨기 싫다는 드라마 주인공의 대사가 처음으로 와닿았다. 잠자리에 들며 다음 날 깨지 않기를 빌었다. 나의 숨소리만이 온 집안을 채우고 있는 아침. ‘이게 뭐지? 인생이란 게 이런 거였어? 뭘 위해 살았고 왜 태어났던 거야?’ 힘이 라곤 모조리 빠져버린 몸을 겨우 붙잡고 멍하니 앉아 있기 일쑤였다. 그렇게 견딜 수 없는 허무감이 일상을 흔들었다.

외출 후 귀가했을 때의 뚫린 가슴도 그 못지않게 힘들었다.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 사소한 일이 그토록 큰 의미를 지닐 줄이야. 친구들이 의도적으로 마련한 여행에서 돌아왔던 때가 잊히지 않는다. 버스는 이천에 가까워 지는데 마음속 구멍은 점점 커져만 갔다. 도어 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맞아 주는 건 침묵의 공기뿐. 낯선 곳이다. 생전에도 항상 그가 맞아줬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 이질감이란.

수도 없이 읽고 들었던 ‘부질없음’이란 단어가 뺏속까지 파고들며 실체를 떠기 시작했다. 갑자기 떠난 연인이나 가족을 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심정을 비로소 알 것 같았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시도 때도 없이 파고드는 질문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데... 매번 똑같은 답 하나가 남았다. ‘내가 겪은 아픔을 내 자식들이 똑같이 겪게 할 수는 없어. 결코, 네버, 절대로.’ 엄마는 위암으로 외동딸 결혼도 못 본 채 58세에 떠나갔다. 내 나이 겨우 스물다섯이었다. 세상 어디에도 발 디딜 곳이 없이 허공에 떠다니는, 딱 그 느낌으로 몇 년을 방황했다. 그 아픔과 슬픔을,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하는 그리움을 나의 자식들에게 줄 수는 없다.

부모는 자식의 등대다. 망망대해에서 표류해도 어딘가에 부모 등대가 불 밝힌 채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자식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혼자라고 해서 그 불빛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태풍이 닥쳤다고 위치를 옮겨서도 안 된다. 그곳에 가면 분명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그것이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증명이

라도 하듯 전화상의 목소리가 가라앉아도, 힘이 없어도 금방 근심 모드로 변하는 그들 아닌가. 내가 안정을 찾지 못하면, 등갓불이 꺼질락 말락 하면, 그들이 자기 삶에 몰두할 수가 없구나. 삶의 의미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느 날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남편의 양말 한 짝도 치우지 못한 사이 6개월이 지나가고 연말이 지나고 있었다. 친구가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을 거냐고, 음력설이 오기 전에 정리하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라고 재촉했다. 도저히 분리수거장 쓰레기로 내다 버릴 수는 없었다. 성당과 교회 몇 곳에 물품 기증을 노크했지만, 처리 곤란이라며 미안해했다. 다행히 인터넷에서 ‘굿윌스토어’라는 사회적 기업을 발견했다. 기증 물품을 손질해 저가로 판매,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다고 한다. 사용이 가능한 물품에 정성까지 담아 몇 상자를 보냈다. 누군가에게로 가서 끝까지 잘 사용되기를 기도하며, 지금 돌아봐도 가장 잘한 일이다.

하지만 문득문득 찾아드는 외로움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채찍이 되어준 것은 섬세한 성격의 아들이 던지는 한마디였다.

“엄마, 아빠 생각하며 슬픔에 젖을 여유가 없어요. 엄마 인생도 겨우 13년밖에 안 남았어요.”

헉, 13년이라니. 그 사이 또 1년이 줄어버렸다. 나의 희망 나이는 팔십이라고 입버릇처럼 뇌던 어미의 말을 아들이 절묘한 때에 이용하고 있었다. 스스로 밥 못 떠먹고 혼자서 화장실 가지 못하는 삶은 의미가 없다. 누군가에게 짐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대충 여든이 그 나이가 아닐까 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 22년,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수학자답게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80세까지 산다면 약 3만 일을 산다고. 난 이미 2만 4천일을 살았고 대략 6천일 밖에 남지 않았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하다 울컥하고 말았다. 아들이 용돈을 자동 이체하며 불인 글귀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다. ‘13년 정기 용돈.’ 그 기간마저 다 못 채울지, 너무 오래 살아서 짐이 될지는 신만이 안다. 어쨌든 슬픔과 실의에 빠지지 말고 이 돈 쓰며 목표 나이까지 활기차게 살라는 암묵적 배려와 요구가 담겨 있었다. 어느새 아들이 나의 등대가 된 셈이다.

겨우 십여 년 남은 세월을 허투루 쓸 수는 없다. 그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분명 나만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젠 그것이 보인다. 동시에 자식이라는 또 다른 등대가 밝히고 있는 불빛을 외면하는 못난 어미가 될 수는 없다. 아직 하고 싶은 것도, 가보고 싶은 곳도 많지 않은가. 실현하지 못한 버킷리스트도 있다. 이 세상 소풍이 끝나는 날까지 자식들에게 흔들

림 없는 등대가 되기. 나의 인생을 최대한 사랑하기. 내게 주어진 마지막 두 가지
임무다. 충실한 이행을 위해 오늘도 1분 1초를 아껴 쓴다. 남편도 응원해 주리라 믿
으며.

우리 애긴 쓰지 마세요, 아빠

일반부 장려 김정수

“가족 얘기는 빼세요. 프라이버시랍니다.”

‘자서전쓰기입문’ 종강일, 지역도서관 글쓰기 강좌 뒤풀이하는 자리다.

“아빠 편 들던 작은 딸까지 걱정하네요.” 내 글 좋다고 응원해주던 회원들에게 하소연해 본다.

“자서전을 쓰면서 식구들 이야기는 쓰지 말라구요?”

“집안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 다들 걱정해준다.

“요즘 집안에서 아버지들이 거의 기를 못 펴요.” 글쓰기 강사가 한 마디 거든다.

“부인과 자식들에게 중심을 세우기 어렵지요.”

“저도 tv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그런 일을 겪었어요.” 시인 할머니가 이야기를 보탠다. 동화구연을 열심히 해선지 목소리에 티가 없다.

“처음엔 우리 할머니 나온다며 일가친척이 둘러 앉아 봤어요. 그런데 가족 이야기를 한 두 번 하면서 다들 화면을 외면하는 거예요. 나중엔 그 시간에 아예 tv를 꺼 버려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맘이 안 좋대요. 어렵게 살아온 속사정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게 불편하답니다. 지난 시절 가난을 이겨내고 이제 이렇게 잘들 살고 있다는 좋은 뜻인데. 자기 삶의 어두운 면은 묻어두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지요.” 아이들이 싫어해도 ‘내 할 말은 한다. 싫으면 너희가 보지 말아라.’ 며 의연하다.

글쓰기 강의를 듣는 동안 언제나 일찍 나가 강의실 앞자리에 앉았다. 그날 강의 자료를 미리 보거나 가져온 책을 읽는다. 첫 과제를 열네 번 고친 끝에 마무리하고, 합평에 올린 두 번 째 글 제목이 ‘내 딸도 고아로 컸다’였다. 학교 교육 틀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며 겪는 사춘기 전후 자녀 이야기다. 어디에도 호소할 곳 없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고통은 늘 안타깝다. 글로 그려낸 교육 현장 모습이 너무도 생생했다며 Y회원이 먼저 나서서 공감을 표현한다.

“소름 돋았어요. 이건 대한민국 중고등 학생들 누구나 겪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아들도 클 때 그랬어요.”

“우리 딸도요.” 다른 회원들도 동조하며 한마디씩 보탠다. ‘넘사벽’이라고 추켜세우며 팬이 되었다던 ‘명랑 총무’도 또 추어준다.

그런 초고를 아내에게 보여 주었다. 자기 이야기로 시작한 첫 과제를 읽고 날카롭게 교정을 도와 준 적 있다. 가장 가까운 독자이면서 혹독한 비평가다. 가족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 전에 아이들 엄마가 먼저 고쳐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저럭 잘 나가는 듯 했는데 느닷없이 딸들의 반응이 지뢰처럼 터졌다. 응원보다는 걱정과 불만으로 불이 붙었다.

타자의 삶을 끌어다 마음대로 재료로 삼는 건 부당합니다.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필해야 해요. 저는 등장하고 싶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자주 부딪치는 큰 딸이 막아선다. 말은 맞는 듯하고, 서슬은 시퍼렇다. 나를 꼭 닮아 그렇다며 아내는 또 슬며시 나를 꼬집는다. 남의 삶을 털끝만큼도 건드려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도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그 생각에도 일리는 있다. 정나미는 없다. 언제나 날이 서 있는 듯한 그들은 늘 옳은 걸까? 송창식의 노래 ‘고래사냥’ 한 구절이 떠오른다. ‘보이는 건 모~두 돌아 앉았네.’

왜 이 글을 쓰고 싶은지 핵심을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세요.

근본적인 문제 제기. 맞다. 나는 왜 자서전을 쓰려는 걸까? 교인들은 믿는 삶에 대해 감사하려고 쓸까? 나는 허무에 대한 반항이라고 말한다. 살아서 이해받지 못하고 죽어서 기억되지 않을 삶에 대한 저항이다. 자기 삶이 아무 것도 아니었다고 초연한 척하는 이들에겐 화가 난다. 자신의 유해를 바람결에 뿌려 버리는 게 쿨하다는 듯. 이미 크게 이룬 거인, 인기 절정의 별들이나 흘릴 말이다. 날카로운 말로 싸움을 걸든, 아름다운 시구로 눈짓을 하든, 사람 사이 소통만큼 귀한 건 없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 있는 수만 명 아무개와 대화하는 것이라면 더 소중하다. 책을 내고 독자들 반응을 보고 나면 내가 글 쓰는 뜻을 나도 알게 될지.

회원들이 공감해 주어 한껏 기가 살아났던 나는 한동안 난감했다. 가족의 반발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냥 꺾일 수는 없다. 역시 젊은이들에게 배워야 한다. 타인을 편하게 대하면 실수가 따른다. 거리가 필요하다. 내 가족이라도 생각 없이 쉽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한다. 사람 사이에 서로 다치지 않도록 섬세하게 배려해야 하는 시대. 나이든 세대는 그런 걸 뒤늦게 배우고 있다. 아직 몸에 붙지 않았으니 말 한 마디도 조심스럽다. 젊은이들의 까칠한 태도에 나도 가끔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다.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남들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순식간에 ‘불편러’ 딱지가 붙을 수 있다며 경고한다.

개인의 취향과 사는 방식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라는 것. 신경 곤두세우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딱하다. 양극화, 집값, 일자리에 기후변화까지, 이전보다 세상 살기가 더 팍팍해진 탓이다. 노년 세대도 마찬가지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도 일

본 사람들 모습을 거의 그대로, 점점 더 빠르게 따라 간다고 한다. 오죽하면 ‘장례식은 필요 없다.’ ‘부모를 버려야 한다’ 고까지 할까? ‘연명치료 거부 존엄사’ 나 ‘노년 자살’ 증가 등의 흐름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마뜩치 않다. 어딘가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작은 딸과 주고받은 카톡 이야기로 마음을 추슬러 본다.

“이거는 내가 사회복지전공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 이런 거에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아지는 시대니까 항상 조심하고 예민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거 같아.

프로블편러가 많아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성숙한 사회로 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함.

오래 공들여 글 쓰고 아빠도 두근두근 걱정 반 기대 반 딸들에게 공유한 걸 텐데 코멘트 상처 났다면 미안해~~

그래도 감정적으로 안 하고 느낀 부분 전달하려고 한 것 ㅇㅇ

계속 재밌게 잘 써 봐. 예민하게 고민하면서 “

“ㅇㅇ 고마워. 책 나올 때까지 계속 고쳐야 하는 거니까 읽고 의견 주기 바람.”

자서전을 예술작품으로 만들고 싶었다. 기록은 모자라고 기억은 뚜렷하지 않으니 빈틈이 생긴다. 그랬을 법한 이야기로 채울 수밖에 없다. 목표나 계획은 세우지만, 다 쓰고 나야 결말이 보일 것이다. 끝을 고정하지 않고 거듭 퇴고하기. 독자의 감정을 헤아리는 일. 이번에 배운 것들을 되새기며 쓴다. 처음부터 바랐던 대로 ‘자전적 소설’ 하나쯤 제대로 지어낼 수도 있겠다. 턱도 없는 일로 보이니 더 소중한 꿈, 나의 고래 한 마리.

수건 한 장, 나의 꿈

학생부 우수 박은서

나의 꿈은 수건이다. 누구나 한 장쯤은 가지고있는 그런 수건. 매일아침 세수 후 얼굴을 부드럽게 포개줄, 매일 밤 양치후 입을 가볍게 닦아줄 그런 수건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집에가는 공사장 아저씨가 목에 두른, 목욕탕에서 나온 옆집 아주머니가 개운한 차림으로 두른, 이모네집 똥강아지도 두른, 심지어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한번쯤은 둘러봤을 자그마치 한 장의 수건이 나의 막대한 꿈이자 소망이다. 어떤이는 수건이 바닥을 닦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이는 몸의 물기를 닦아주는 정도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수건은 무지막지한 양의 물을 흡수하고 깨끗하게 닦아준다. 닦아주는 것 만이 중요한게 아닌, 깨끗이 상쾌하고 기분좋게 닦아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런 수건이 되고싶다 내가 수건이 되고싶은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주고 나의 죽마고우인 나의 친구가 혼자 감당하지 못할 일을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후 나는 내가 수건이 꼭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내가 수건이 되지않으면 정작 나의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부드럽게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난 내가 먼저 수건이 되기로했다. 수건같은 사람이란 진정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처와 진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건이 무지막지한 양의 물을 흡수하듯 나도 수건이되어 타인의 아픔을 헤아려보고 나의 촘촘하고 미세하며 부드러운 손길로 상처깊은 사람들을 모두,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닦아주어 보겠다. 수건이 되는 나만의 비법으로는 먼저 경청을 실천한다. 들어주는 것도 상대의 상처를 헤아릴 수 있는 수단이다. 경청을 하려면 상대의 처지를 잘 알고있어야 하며 귀기울여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감을 실천한다. 공감을 하며 상대방과 감정을 교류함으로써 돈독한 사이를 형성하고 신뢰감을 얻을수 있게된다. 마지막으로 진심이 담긴 마음이 필요하다. 진심이 아닌, 가식 또는 거짓으로 경청과공감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절대 상대방의 수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마다 수건이 되어주는 순서와 방법은 조금씩 차이점이 있겠지만, 진실된 마음만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나의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수건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지금도 수건이 되어가기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당신도 수건이 되기위한 방법들을 실천해보길 바란다. 그렇다면 당신이 아닌 당신의 수건은 당신의 주변에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들에게 감사하자. 그 이유는 수건은 모두 집에 당연히 한 장씩있기 마련이다. 그러기 때문에 수건의 필요성과 중요성 모두 잊고 살아왔을 것이다. 그렇다 나도 잊고살아가며 나날들을 보내왔었다. 당연히 생각했던 수건의 존재에 감사하자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무지막지한 양의 진물을 수건으로 닦아줄 유일한 수건일테니. 당신도 수건이 되어라 뭐든 좋으니 당신의 가장가까운 사람에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한개뿐인 값비싼 수건이 되어보자. 내 꿈으로 인해 당신이 조금이라도 수건 같은 사람이 되는것에 흥미가생겼다면 다행이다. 수건이 이 글을 쓴 나의 꿈이라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실천못할 이유는 없다. 당신이 꼭 수건이 되길 바란다. 물체의 수건이 아닌 그 누군가의 고유한 수건으로 말이다 요즘 같이 인정(人情)이 사라진 현실에서 우리는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같이 공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아닐까? 나의 최종 꿈은 모두가 서로의 수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달릴 것이다. 이상 지금까지 나의 꿈 수건이었다.